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변경 추진

전북교육청, 참여형 정책숙의제로... 내달 13일 교육공동체 토론회

전북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변경을 참여형 정책숙의제로 추진중인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할 학생, 교원, 학부모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변경 정책숙의는 학생이 지식 위주의 학력

을 넘어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소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안이다.

지침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율해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수업일수의 20%(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한다

이렇듯 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면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지침으로 일괄 시행되면서 학교차이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공론화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는 오는 11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적절인가?를 의제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교원, 학부모는 오는 11월 4일까지 전북교육포털 유레카(<http://www.statshod.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는 27일 대학 본관에서 (사)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와 초음파교육전문 지방연수원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에 '초음파교육전문 지방연수원' 신설

초음파 교육전문 지방연수원이 전주대학교에 신설된다.

전주대는 27일 대학 본관에서 (사)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와 초음파교육전문 지방연수원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전문 교육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중앙연수원(원장 노지숙)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지방의 방사선사가 참여하기에는 거리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전주대에 '초음파교육전문 지방연수원'이 설치돼 상복부 초음파, 심장초음파, 근골격계 초음파 등 초음파 강좌가 상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도내 지역 방사선사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대학교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양해각서를 통해 ▲지방연수원 활성화를 위한 인적 교류 ▲초음파 전문교육대학원 과정 개설을 통한 자질향상 ▲과정 수료자의 취업활동 노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전주대는 초음파교육전문 대학원을 개설해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전북교육정책 포럼 30일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정기)가 사회적 전환기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에 나섰다.

27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제15회 전북교육정책 포럼'이 오는 30일 개최된다.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는 비상시기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은 학교급별 현장 교사의 주제 발표와 청중들의 자유토론으로 구성된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이번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JB연합 스타트업 역량강화&Depth Networking' 캠프를 운영했다.

전북대, 비대면 분야 예비 창업자 9억 지원

역량강화 캠프... 아이디어 보완·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등 교육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비대면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9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가 창업 분야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창업지원단은 지난해 5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오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4차산업 및 전북 전략산업 등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

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모션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 교육, 투자, 판로(국내 및 해외), 기술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언택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람과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창업아이템이 지원받게 된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이번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JB연합 스타트업 역량강화&Depth Networking' 캠프를 운영했다.

예비창업자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전북대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원광대 등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캠프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과 아이디어 보완 및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창업기업 운영전략, 기술창업 실무, 창업자 네트워킹 등의 다채로운 교육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은성 기자

서전주청년회의소, 전북교육청에 마스크 전달

서전주청년회의소가 어려운 학생 지원에 써 달라며 생리대와 마스크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최진규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명은 27일 도교육청을 방문, 김승환 교육감에게 마스크 1,500장과 생리대(30명, 1년분)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전주시 한 중학교 차상위계층 및 교육복지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전주청년회의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해마다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마

스크 지원은 (주)태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소주시 청년연합회로부터 후원받은 기금도 도교육청에 전달, 50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안경을 지원했다.

최진규 회장은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면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학생들이 더 밝은 눈과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경영학과 교수들, 제자 사랑 장학금 기탁

전주대 경영학과 교수들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모금 캠페인인 '힘내라 수퍼스타'에 참여, 장학금 1,80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경영학과 13명의 교수가 100만원씩 총 1,300만원을 내놓았다.

더불어 220여명의 경영학과 국제학생들을 돕기 위해 남기창 교수가 추가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기훈 경영학과장은 "표면적으로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학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면 교수들은 더 많은 힘을 얻는다"며,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